

쉽고 빠르게 읽기

3·1 독립선언서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펴내며

1919년 3월 1일, 전국의 7개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1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는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 준 3·1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썼습니다.

원고를 쓰고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3·1독립선언서에는 33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을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천도교 지도자 15명, 기독교 지도자 16명, 불교 지도자 2명이 독립의 의지를 담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에 인쇄되어 2월 28일에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3월 1일, 7개 도시에서 열린 만세 시위에서 3·1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3·1독립선언서는 인쇄 기계가 있는 학교나 교회에서 수백 매, 수천 매씩 찍어 냈고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열리는 만세 시위 현장에서 읽혔습니다.

만세 시위 현장에서 직접 낭독한다는 마음으로 3·1독립선언서를 한번 읽어 보세요.

2019년 1월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¹⁾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²⁾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1)조선 = 우리나라

2)조선인 = 우리나라 사람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어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³⁾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3) 도의=인도와 정의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⁴⁾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4) 존영=고귀하고 세상에 빛남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宣言書



吾等은茲에我朝鮮⁶⁾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此로써世界萬邦에告하야人類平等の大義를克明하며此로써子孫萬代에誥하야民族自存의正權을永有케하노라半萬年歷史의權威를仗하야此를宣言함이며二千萬民衆의誠忠을合하야此를佈明함이며民族의恒久如一한自由發展을爲하야此를主張함이며人類的良心의發露에基因한世界改造の大機運에順應并進하기爲하야此를提起함이니是 | 天의天命이며時代の大勢 | 며全人類共存同生權의正當한發動이라天下何物이던지此를沮止抑制치못할지니라

舊時代의遺物인侵略主義強權主義의犧牲을作하야有史以來累千年에 처음으로異民族箝制의痛苦를嘗한지今에十年을過한지라我生存權의剝喪됨이무릇幾何 | 며心靈上發展의障礙됨이무릇幾何 | 며民族의尊榮의毀損됨이무릇幾何 | 며新銳와獨創으로써世界文化の大潮流에寄與補裨할機緣을遺失함은무릇幾何 | 노

噫라舊來의抑鬱을宣暢하려하면時下의苦痛을擺脫하려하면將來의脅威를芟除하려하면民族의良心과國家의廉義의壓縮銷殘을興奮伸張하려하면各個人格의正當한發達을遂하려하면可憐한子弟에게苦恥的財產을遺與치안이하려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려하면最大急務가民族의獨立을確實케함이니二千萬各個가人마다方寸의刃을懷하고人類通性과時代良心이正義의軍과人道의干戈로써護援하는今日吾人은進하야取하매何強을挫치못하라退하야作하매何志를展치못하라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의金石盟約을食하얏다하야日本의無信을罪하려안이하노라學者는講壇에서政治家는實際에서我祖宗世業을植民地視하고我文化民族을土味人遇하야한것征服者의快를貪할뿐이오我의久遠한社會基礎와卓犖한民族心理를無視한다하야日本의少義함을責하려안이하노라自己를策勵하기에急한吾人은他의怨尤를暇치못하노라現在를綱繆하기에急한吾人은宿昔의懲辦을暇치못하노라今日吾人의所任은다만自己의建設이有할뿐이오決코他의破壞에在치안이하도다嚴肅한良心의命令으로써自家의新運命을開拓함은決코舊怨과一時的感情으로써他를嫉逐排斥함이안이라舊思想舊勢力에羈縻된日本爲政家の功名的

5) 3·1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8일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3월 1일 배포되었다. 여기에 실린 3·1독립선언서는 보성사판을 따랐지만 조선(朝鮮)을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한 부분은 바로 잡았다.
6) 보성사판 원문에는 선조(鮮朝)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犧牲이된不自然又不合理的錯誤狀態를改善匡正하여自然又合理的正經大原으로歸還케함이
로다當初에民族의要求로서出치안이한兩國併合의結果가畢竟姑息의威壓과差別의不平과統
計數字上虛飾의下에서利害相反한兩民族間에永遠히和同할수업는怨溝를去益深造하는今來
實績을觀하라勇明果敢으로써舊誤를廓正하고眞正한理解와同情에基本한友好的新局面을打
開함이彼此間遠禍召福하는捷徑임을明知할것안인가또二千萬含憤蓄怨의民을威力으로써拘
束함은다만東洋의永久한平和를保障하는所以가안일뿐안이라此로因하여東洋安危의主軸인
四億萬支那人의日本에對한危懼와猜疑를갈수록濃厚케해야그結果로東洋全局이共倒同쓰의
悲運을招致할것이明하니今日吾人의朝鮮獨立은朝鮮人으로써야금正當한生榮을遂케하는同
時에日本으로써야금邪路로서出하야東洋支持者인重責을全케하는것이며支那로하야금夢寐
에도免하지못하는不安恐怖로서脫出케하는것이며또東洋平和로重要한一部를삼는世界平和
人類幸福에必要한階段이되게하는것이라이엇지區區한感情上問題 | 리오

아아新天地가眼前에展開되도다威力의時代가去하고道義의時代가來하도다過去全世紀에鍊
磨長養된人道의精神이바야흐로新文明의曙光을人類의歷史에投射하기始하도다新春이世界
에來하야萬物의回蘇를催促하는도다凍氷寒雪에呼吸을閉蟄한것이彼一時의勢 | 라하면和風
暖陽에氣脈을振舒함은此一時의勢 | 니天地의復運에際하고世界의變潮를乘한吾人은아모蹣跚
踏할것업스며아모忌憚할것업도다我의固有한自由權을護全하야生旺의樂을飽享할것이며我
의自足한獨創力을發揮하야春滿한大界에民族의精華를結紐할지로다

吾等이茲에奮起하도다良心이我와同存하며眞理가我와并進하는도다男女老少업시陰鬱한古
巢로서活潑히起來하야萬彙羣象으로더부리欣欣한復活을成遂하게되도다千百世祖靈이吾等
을陰佑하며全世界氣運이吾等을外護하나니着手가곳成功이라다만前頭의光明으로驀進할자
름인더

公約三章

- 一. 今日吾人의此學는正義,人道,生存,尊榮을爲하는民族의要求 | 니오즉自由의精神을發揮
할것이오決코排他的感情으로逸走하지말라
- 一. 最後의一人까지最後의一刻까지民族의正當한意思를快히發表하라
- 一. 一切의行動은가장秩序를尊重하야吾人의主張과態度로하야금어대까지던지光明正大하
게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鎭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麟
韓龍雲 洪秉箕 洪基兆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